

* 오 세 준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이해
	III. '문화예술'로서의 Cultural Arts
	IV. 결론
	참고문헌

* 성균관대학교 연극예술학과 초빙교수

논문투고일 : 2016.01.30.

논문심사일 : 2016.02.17.

게재확정일 : 2016.03.01.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munhwayesul koyuk' and the concept of cultural arts

Oh, Sae-jo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term 'munhwayesul kyoyuk' ("Arts & Culture Education" by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can be translated as cultural arts education in English. Munhwayesul kyoyuk in Korea means something close to arts education primarily for amateurs, hands-on experience, and realizing social context through the artistic or cultural activities. Cultural arts can be the counterpart of 'munhwayesul' in the term 'munhwayesul kyoyuk'.

Roh Moo-hyun government inaugurated in 2003 started a new policy called 'munhwayesul kyoyuk', and the policy caused problems of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the identity of itself. When the government invented the policy to make teaching jobs for artists at that time, it coined a new term 'munhwayesul kyoyuk' by combining 'munhwa kyoyuk' (Cultural Education) and 'yesul kyoyuk' (Arts Education) which were already existing. The word 'munhwayesul' in the new term has been considered abnormal since its birth as the word had no academically valid origin. Also, there has been no consensus on the meaning of 'munhwayesul' while nobody has been skeptical about the meaning of 'kyoyuk' that means education. The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unhwayesul' caused the difficulty of translating the term 'munhwayesul kyoyuk' into English.

As the practices and the achievements of 'munhwayesul kyoyuk' are examin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between 'munhwayesul', which is the content of 'munhwayesul kyoyuk', and cultural arts are discovered. Therefore, Munhwayesul can be translated as cultural arts. With this translation that finds 'munhwayesul' is not "abnormal" as its legitimate counterpart, cultural arts, exists, 'munhwayesul kyoyuk' can acquire a proper identity for itself as cultural arts education.

본고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국제어의 유력한 형식으로 번역할 때 ‘Cultural Arts Education’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예술교육’을,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체험적 교육”을 지향하고(문화관광부, 2007: 25), 단순히 기예나 기능을 연마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문화와 예술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연계”됨을 지향하는 것 즈음으로 이해한다면(김세준 외, 2015: 11 참조), ‘Cultural Arts’라는 말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 안의 ‘문화예술’에 대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3년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더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시동을 건 이후로, 그 동안 그것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있어 논란이 없지 않았다(송미숙, 김정은, 홍애령, 2014: 14 참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 안의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 이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한 혼란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외국어 번역들에도 반영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주관하면서 한동안 예술 형식 간의 경계 해체와 융합을 주된 이념으로 진흥하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었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스스로의 영문 명칭을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라고 표기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예술’과 ‘문화’라는 두 개념의 나열 혹은 병립 이상의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취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했던 2009년 2월의 ‘문화예술교육포럼’에서 어떤 발제자는 ‘문화예술교육’을 Culture & Arts Education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문화’와 ‘예술’의 양립으로서 정의하며 용어의 표기를 달리 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31). 또한, 2010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때는, 행사의 공식 영문 명칭이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이었지만, 주최측이 이 명칭 안의 “Arts”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화예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예술’과 ‘문화예술’이 결국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어감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¹⁾

1) ‘문화예술’의 번역이 통일되지 못하고 혼란을 보이는 예들은 어렵지 않게 더 찾아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그것의 명칭을 The Korean Cultural & Art Centers Association으로 표기

이렇게 ‘문화예술’의 정체성 규정에서 혼란이 존재하고, 하나의 말이 원칙 없이 다르게 번역되며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다른 어감이나 의미를 갖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본고는 ‘문화예술’과 ‘Cultural Arts’를 대응시킴으로써 정체성의 이해와 번역의 문제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위하여 본고는 ‘문화예술’과 ‘Cultural Arts’의 의미를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예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연관시켜 볼 것이다. ‘문화예술’과 ‘Cultural Arts’ 둘 다, 합의된 정의가 먼저 존재한 후 그것이 구체적 사례들에 연역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현장의 활동들이 성장하고 팽창하는 가운데 집합적이며 관행적으로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이 우선 가동에 들어간 다음 이후의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확보해 가고 있으며, ‘Cultural Arts’라는 말 역시 만족할만한 사전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의 기관들이나 단체들의 명칭과 활동에 사용되면서 실천을 통해 사회적 공인과 언어적 세력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예술’과 ‘Cultural Arts’의 개념을, 그것들의 실천 양상이나, 사례들이 형성하는 맥락을 통해 서로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번역어로서 추천하고자 한다.

번역이라는 것은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편리를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일 이겠지만, 번역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보다 보편적일 수 있는 관점을 설정함으로써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로이 수립하는 일일 수도 있다. ‘문화예술’과 ‘Cultural Arts’를 연결시키고 ‘문화예술교육’을 ‘Cultural Arts Education’으로 번역하는 본고의 시도가 소통의 편의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하고 있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라고 교명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명칭을 Arts Council Korea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종류의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이해

‘문화예술교육’은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됨으로써 정체성의 규정에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창의력을 저해하는 주입식교육에 대한 반성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등의 사회적 동기에 힘입어 그것의 실천은 계속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현안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가지면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의의를 점점 더 증가시켜 온 “과정적 정체성 혹은 현안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대한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었지만,²⁾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특정 정책이 착수된 것은 2003년에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즈음 문화관광부는 이미 존재하던 답론인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결합시켜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예술강사의 파견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예술교육’을 고안해 냈다(황연주, 정연희, 2004:3). 그렇게 “사실상 정책적으로 형성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관광부, 2007: 24-25), ‘문화예술’이라는 “복합어”이자 “신조어”의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적인 ‘교육’의 개별 실천들이 가동되는 사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송미숙, 김정은, 홍애령, 2014: 14; 황연주, 정연희, 2003: 3 참조).

김성봉 (2007)의 연구에서 언급되듯이, 이러한 사정은 이미 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4년부터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은 “여러 활동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식의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관행적” 현실은 현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문화예술’이라는 말을 구성하게 된 단어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어원과 의미 해설부터 제공하는 식이었던 그간의 정의 시도들은 그리 효과적인 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신, ‘문화예술교육’

2) ‘문화’는 1920년대를 즈음하여 “근대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지상 가치 중의 하나로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의 문화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오세준 (2015), “1920년대의 문화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더니예술 12, 45-56.

의 구체적 실천 현황들로부터 출발하여 그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들을 발견, 개념적으로 추상화하고 설정해 내는, 일종의 귀납적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하겠다.

이런 전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이 보이는 어떤 언급할 만한 특징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 특징들을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로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에 의해 보면,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크게 나뉘어져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국악, 공예,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문학, 사진, 연극, 음악, 디자인, 미술, 기타 혹은 통합분야 등 다수의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그 안에서 다시 많은 세부 분야들을 포함하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용은 전통 무용, 발레 등 고전적인 형식들과 함께 방송댄스, 힙합, 댄스체조, 라틴체조 등 새로운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의 범주에는 기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우쿨렐레, 드럼 등의 악기 연주와, 합창, 아카펠라라는 물론 대중음악과 난타까지 들어 있으며, 공예의 경우는 금속 공예나 도예 등과 아울러서 비즈공예, 클레이, 종이접기 등도 포함되고 있다. 통합분야의 경우에는 전통놀이, 음악동화, 생태예술 등 여러 개의 분야가 있어서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김세준 외, 2015: 41-48).

이러한 다양성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현재의 사회 안에서 의의를 획득하고 삶의 양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식들에 대하여 수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눈에 뜨인다. ‘문화예술교육’은 이전에는 예술의 범주에 들 수 없었던 것들을 기존의 예술들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며, 필요하다면 각 분야들이 서로 응용, 융합되도록 할 수 있는 여지까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탈근대의 철학이나 ‘융합’, ‘통섭’ 등의 개념이 각광을 받으면서 모든 경계가 해체되며 모든 형식이 통합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의 본질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가 강하게 대두되기도 했었지만,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분화 발전되고 정립되어 온 기성 예술 분과의 개념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렇기는 하되 결코 그것들의 고전적 형식 전수에만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기존의 예술 형식들도 존중하면서 방송

댄스나 요리, 마술, 통합 같은 분야들까지 과목으로 들어와서 공존하게 되는 상황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예술’이 현재의 생활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혹은 새로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포섭하는 현안중심적,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계속 변모해 나가는 과정적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문화예술’은 매우 다양한 대상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의 학생들과 더불어서, 소외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 장병, 수형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취약 계층’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성격의 대상들에게 행해져 왔다(김세준 외, 2015:8;41). 그리고 사업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으로도 지원대상을 더욱 다변화시키고 있다. 일반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등 전국민으로도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대상의 확장 추세는,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여건” 혹은 출신별로 나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그룹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고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공동체 형성이나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김세준 외, 2015:49;66 참조). 그리하여 ‘학생’이나 ‘시민’ 등 일반적 대상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등, 특수한 그룹 혹은 커뮤니티의 생활양식 (문화)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표출된다. 어떤 사회적 그룹 혹은 커뮤니티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보다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생활양식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여 전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점점 삶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다문화’가 진행되는 현사회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보이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특징이다. 지리적 커뮤니티는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이자 대상이며, 협력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활동들은 학교는 물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즉 지역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임학순 (2015)의 연구에서 언급되듯이,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발표회나 이벤트 등은 학습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는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는 학습자를 넘어 지역주민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은 “학습자의 예술적 역량”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현안에

관심을 갖기도 하며,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연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자계예술촌,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끈, 국화꽃향기 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문화예술’의 활동을 그 지역의 농산물 판매나 관광 등과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언뜻보면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명확한 원리 없이 그때 그때 끼어들어 혼재하게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결과적으로는 유사 깊은 형식들과 새로운 형식들이 각기 개성을 달리하며 펼쳐져 온 ‘문화예술’의 교육적 실천들이 전체적으로 공통된 본질을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어떤 유력한 단체들의 주장이 좀 더 반영되었건, 어떤 권력적 기관의 지도가 보다 영향력 있게 작용하였건, 그것은 본질의 긍정적 성질을 변경시키거나 본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특징들에 대해서는, 점점 다원화되는 시대의 사회가 보이는 욕구와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거대한 그림이 모자이크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적, 현안 중심적 노력의 조각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면서 그림의 크기와 색조를 계속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Ⅲ. ‘문화예술’로서의 Cultural Arts

‘문화예술교육’안의 ‘문화예술’에 대응하는 서구어로서 ‘Cultural Arts’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은 Cultural Arts Education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Cultural Arts’는 기성의 예술 형식들과 기성 예술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 문화적 활동들을 포괄하여 지칭할 수 있는 어휘인데, 이 용어의 보다 자세한 어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천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전들에서 ‘Cultural Arts’라는 항목을 개설하고 해설하는 예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데다가, ‘Cultural Arts’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또한 이 용어의 유래를 설명하거나 ‘Cultural Arts’란 정확하게 이리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쾌하게 규정하면서 활동하지는 않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이 용어는 그

3) 다만, 오하이오 주의 어퍼 알링턴(Upper Arlington) 시의 경우에는 1972년도에 Cultural Arts Commission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Cultural Arts Commission”, Retrieved February 18, 2016). 이 기록에 따라 ‘Cultural Arts’라는 말의 기원이 최소한 1970년대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개념이 정밀하게 이론화되고 확정되지 않은 채 관습적, 관행적으로 전파되어 온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Cultural Arts’ 라는 말을 자신들의 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공간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 사례들의 면모를 살펴 봄으로써 개념의 이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 텍사스 주의 주도 (capital)인 오스틴 (Austin) 시의 경제개발과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내에는 Cultural Arts Division이라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 Arts Marketing Specialist이자 Austin Museum Partnership의 공동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Lani Gonzalez는 본고의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Cultural Arts’의 용례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음악, 미술, 연극, 그리고 무용을 “cultural arts”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사회의 관습들과 가치들을 반영하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⁴⁾ [중략] “Cultural Arts”는 광범위한 예술 분야들 (시각예술, 무용, 음악, 영화, 연극, 기타 등등)을 포함하며 “Arts”와 종종 호환하여 사용됩니다. “예술(Art)”과 “문화(Culture)”는 자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arts and culture”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나는 그 용어 (Cultural Arts)의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Cultural Arts”는 정부기관이나 커뮤니티센터처럼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들에 의해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전문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봉사한다는 -- 모든 이들에게 참여와 창의의 기회를 공급한다는 --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L. Gonzalez, e-mail, February 5, 2016).

Lani Gonzalez의 이해에 의하면, ‘Cultural Arts’는 일상 속에서 ‘Arts’, 그리고 ‘Culture’와 지시 대상이 엄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예술에 대하여, 그것이 사회의 생활 양식과 가치들을 반영하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기능한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감을 강하게 갖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그 예술이 소수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일반 대중을 위해 실행되고 대중이 직접 체험하며 향유하는, 보다 공공적이며 공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감도 가지고 있다.

Lani Gonzalez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인 Cultural Arts Division은 오스틴 시의 경제개발과에 속해 있다. Cultural Arts Division은 “문화사업”이나 “예술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의 홈페이지는 Cultural Arts Division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⁴⁾ 이러한 설명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에 같은 내용으로 올려져 있는 설명을 참고한 것인 듯하다. 그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Cultural Arts’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경제개발과의 Cultural Arts Division은 시의 cultural arts 프로그램들과, 예술과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개발을 지도 및 감독한다.

Cultural Arts Division은 Cultural Arts 지원기금, 공공장소의 예술품 설치, 지역사회 기반의 예술 발전, 오스틴 내의 창의적 산업들의 개발 및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문화적 정체성과 활력의 지원 및 진흥 업무를 맡는다 (*Cultural Arts*, Retrieved January 25, 2015).

오스틴 시의 홈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Cultural Arts Division의 담당 업무를 통해 ‘Cultural Arts’의 개념을 추출해 보면, 그것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기성의 예술형식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통념적으로 예술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관광이나 전자 미디어 등의 활동들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하며 대중 친화적인 것이다. Cultural Arts Division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문화 행사들과 도시의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게임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ultural Arts’는 지역사회에서 유익한 기능을 담당하려는 가운데 경제적 효과의 창출에까지 기여하고 있다.

‘Cultural Arts’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말은 Lani Gonzalez 개인과 오스틴 시 당국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ultural Arts’의 범위에는 이전부터 예술의 범주에 들던 것들도 있지만, 통념적으로 아직 예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거り낌 없이 포함되고 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South San Francisco) 시에서는 ‘Cultural Arts’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Cultural Arts Commission이라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Cultural Arts’ 프로그램들은 주로 시각적 분야의 것들인데, 회화, 꽃꽂이 (floral design), 사진, 조각, 텍스타일, 도자기 인형, 미니어처, 분재 (bonsai)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들에 대한 전시행사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Cultural Arts Programs”).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학부모교사연합회(PTA)는 Cultural Arts Grants 라는 명칭의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조금 제도는 공연

4) 우리는 음악, 미술, 연극, 그리고 무용을 cultural arts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심신을 개발하고, 정서, 사고, 취향을 순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리 사회의 관습들과 가치들을 반영하고 나타내기 때문이다.

[원문] We call music, art, drama, and dance cultural arts because they are tools that help us develop the mind and body, refine feelings, thoughts, and tastes, and reflect and represent our customs and values as a society.

이와 같은 설명은 <http://people.uncw.edu/walkerr/culturalartsandmulticulturalism.htm>, <http://wilcox.wch.schoolsites.com/?PageName='OrganizationPage'&OrganizationID='16198'>, 그리고 <http://jee-pec2014.blogspot.kr/2014/03/cultural-arts.html>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술, 미술, 독서장려 프로그램 (read-a-thons), 미술관 안내 프로그램 (art docent programs)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California State PTA”).

동부의 뉴욕 주 매서피쿠아(Massapequa) 마을에 있는 **Young People’s Cultural Arts Workshop**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부모들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서, 이 단체는 ‘Cultural Arts’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예술 (creative arts),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음악, 학문 (sciences)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Young Peoples’ Cultural Arts Workshop”).

마찬가지로 메사추세츠 주의 업튼(Upton)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인 미모리얼 스쿨(Memorial School)의 학부모 교사 협의회 (PTO)에서도 ‘Cultural Arts’를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Cultural Arts’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ultural Arts란 무엇인가?

Cultural Arts 프로그램들은, 학생이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세계의 관점(real-world perspective)에서 보도록 하는 상호소통적 (interactive), 문화적 다양성의 (culturally diverse) 프로그램들입니다! [중략] 올해에 재개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중에는 공룡탐사, 동물서식지 학습, 별자리 탐사와 추리극 만들기가 있습니다! (“What is Cultural Arts?”)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다양한 예술적 영역들은 물론 예술과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 그리고 심지어 예술의 경계 너머에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Cultural Arts’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주로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모리얼 스쿨의 예가 직접적으로 표방하듯이, ‘Cultural Arts’에서는 주입식이 아닌 체험적 형식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Cultural Arts의 활동은 특수한 계층 혹은 문화적 그룹을 인식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 중서부의 일리노이 주 캐럴스트림 (Carroll Stream) 마을에 있는 **Western DuPage Special Recreation Association (WD-SRA)**에서는 미술, 무용, 음악, 연극, 요리, 비디오 등의 교육을 포함하는 각종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Cultural Arts’라는 명칭으로 주로 장애인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 (“WDSRA Mission”).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시에 있는 **Cultural Arts Alliance**라는 단체는 학교, 경찰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래피티와 벽화 교육 (Graffiti Education & Mural Arts Program)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들과 법집행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건전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an Diego Graffiti Education & Mural Arts Program”; “Mission Statement”).

특별한 문화적 그룹이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인종적 정체성이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버지니아 주의 글렌 앨런 (Glen Allen) 지역의 **The Cultural Arts Center**는 음악 (기타, 피아노 등), 미술 (수채화, 파스텔화, 아크릴 화 등) 등의 형식들과 함께 사진, 모자이크, 섬유공예 (Fiber Arts), 장신구 만들기, 도예, 로봇 만들기 (Robotics)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Culinary Arts**’ 라고 하여 “다문화요리 만들기” 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각 이민자 그룹의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시도하고 있다 (“The Cultural Arts Center at Glen Allen”). 라틴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산페르난도 (San Fernando) 시의 **Cultural Arts** 프로그램들이나 아프리카적 정체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인 **Origination**의 프로그램 등은 그러한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예가 될 것이다 (“Cultural Arts Programs”, Retrieved February 1, 2016; “Our Mission”).⁵⁾

이미 앞의 예들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Cultural Arts**’의 활동들은 지역 사회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의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주로 보인다. 오하이오 주의 어퍼 알링턴 시에서 **Cultural Arts** 위원회가 조직될 때 그것은 “이 지역사회의 예술 발전과 문화적 유산 보존”에 복무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Cultural Arts Commission”, Retrieved February 18, 2016).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의 **Downtown Cultural Art Center**는 자신들의 임무를 “볼티모어 시에 특별히 집중하면서 메릴랜드 주의 예술과 문화적 발전 기회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기관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공방, 전시회, 연극, 무용, 시각/디지털/미디어 교육 등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 박물관, 미술관, 지역의 예술가, 산업, 대학, 시 정부 같은, 예술 양성을 진흥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Downtown Cultural Arts Center”). 일리노이 주의 엘진 (Elgin) 시의 **Cultural Arts** 위원회는 “다양한 연령, 인종, 종교 그룹들을 위한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증진한다”, “예술과 경제 개발의 결합을 장려함으로써 시의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와 같은 내용을 자신들의 의도에 포함시키면서 ‘**Cultural Arts**’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⁵⁾ 사실 다인종국가인 미국에서는 ‘Cultural Arts’의 개념에 각 인종 특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결부되는데, 이런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경제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Cultural Arts Commission”, Retrieved February 1, 2016).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Cultural Arts’라는 말은 기성의 예술 장르들과 새로운 형식의 예술적 활동들을 다양하게 포함하면서 그것들이 단지 미학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라는 차원에 위치하면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개념 안에 들어오는 분야들의 면면을 보면, ‘Cultural Arts’가 어떤 고정된 개념적 틀이나 범주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변모에 발맞추어 내용과 대상에서 계속적인 외연 확장과 의미의 형성을 이루며 역동적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Cultural Arts’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호주와 캐나다 등 지에서도 사용되는 예가 발견되며,⁶⁾ ‘Cultural Arts’라는 말이 사용되는 예들의 특징을 살펴 볼 때 이 말은 한국의 정책적 신조어인 ‘문화예술’과 의미상으로 무리 없이 대응한다.⁷⁾ 그리하여 ‘문화예술’은 ‘Cultural Arts’로 번역이 가능하며, Cultural Arts Education은 ‘문화예술교육’의 적절한 번역이 될 것이다.

6) 호주 웨스턴 시드니 지역의 정부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cultural arts를 아래의 인용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인용 부분의 내용이 ‘Cultural Arts’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Cultural Arts’에서는 예술이 중심 개념이 된다는 것과, ‘Cultural Arts’가 기성의 장르 예술, 새로이 대두된 형식의 예술, 학문 분야, 전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

What is meant by Cultural Arts

Modern definitions of culture include dance , music, art, sports, multiculturalism and popular discourse among other things. The arts however play a unique and central role in cultures development and expression.

For the purposes of this report culture is discussed exclusively in terms of venues and events involved in:

- Performance Arts
- Visual Arts
- Digital Arts
- Creative Arts
- Applied Arts and Sciences
- Natural History
- Heritage (“Building Western Sydney's Cultural Arts Economy”)

‘Cultural Arts’가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예는 <http://mrpmparksandleisure.ca/227/Arts-Culture>에서 발견할 수 있다.

7) 한때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는 ‘Cultural Arts’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이 실린 적이 있었다.

문화예술(Cultural arts)이란 다른 예술 형식들의 변용과 협력을 말한다. 이 용어는 창의적 사고와, 시각예술,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예술들과 오늘날의 시각문화의 분석을 포함하는 비판력(critique)을 나타낸다. 문화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주 현행의 관념들과 사상들, 실천들에 도전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다중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적(interdisciplinary), 그리고 탈장르적(cross-genre)이다. 문화예술은 정의보다는 의미에 관한 것이며, 창의적 탐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간혹 다중문화예술(multifunctional-cultural arts)이라고 알려져 있음.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결합된 결과인 ‘문화예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혹은 수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만족스러운 외국어 번역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에서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여 보면, ‘문화예술’이란, 기존의 예술 범주들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식들을 아우르고, 주로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시키는 가운데 계속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현안중심적이며 과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Cultural Arts’와 의미가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ultural Arts’라는 개념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자 핵심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에 충분히 대응한다고 보고 ‘문화예술교육’을 ‘Cultural Arts Education’으로 번역할 수 있다.

[원문] Cultural arts refer to transformation and a collaboration of different art forms. The term embodies creative thinking and critique, which encompasses the analyses of contemporary visual culture alongside other art forms i.e. visual art, literature, music, theatre, film, dance, etc. Cultural arts help to explain the world in which we live, worldview and often challenge current ideas, thoughts and practice. In general, cultural arts are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and cross-genre. Cultural arts are less about definition and more about meaning and making sense of our current environment through an exploration of creativity. Sometimes known as multifunctional-cultural arts. (“Cultural Arts”, Retrieved January 2, 2015)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은 인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의 특성상,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의 권위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므로 본고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설명의 말미에는 multifunction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고, 구글(Google)을 통해 검색해 보면 주로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만 발견되는 표현이다. 위키피디아에 실렸던 원문을 미국 출신의 영어 원어민에게 보여준 바, 그도 언어의 구사에서 자연스럽게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정황상, 위의 ‘Cultural Arts’의 정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Cultural Arts’와 같은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개념을 ‘Cultural Arts’라고 번역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정의는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삭제되어 있으나, 2016년 2월 13일 현재 https://www.geocaching.com/geocache/GC5GJ9W_afk-to-cultural-arts, http://society.interactiva.org/Ethnicity/African/Cultural_Arts/, 그리고 http://www.worldlibrary.org/article.aspx?title=cultural_arts 등의 다른 사이트에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Cultural Arts’로 표기하는 번역은, 의미상의 근사치 외에 다른 장점들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Culture & Art’나 ‘Art & Culture’ 등의 표현보다 그 동안 우리의 공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역사가 길지 않은 신조어인 ‘문화예술’을 나타내는 말로서 비교적 신선한 어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개의 명사가 나열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복합명사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이라는 한 단어에 보다 적합하게 대응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성봉(2007)의 연구 안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동안 ‘문화예술’이라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합성명사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일종의 비정상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알게 모르게 아예 ‘예술교육’으로 환원시키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서구적 기준이나 국제적 대세에 맞추고 싶어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 혹은 합법화하는 근거로 외국에서 발견한 사례를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경향이 적용된다면, ‘문화예술’의 개념을 번역할 수 있는 대응물로 ‘Cultural Arts’라는 예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상성을 합리화하고, ‘문화예술교육’에 합당한 정체성을 수립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봉 (2007),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한계",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9(1), 23-37.
- 김세준 외 (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2013년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관광부 (2007), **2006 문화예술교육 정책백서**.
- 송미숙, 김경은, 홍애령 (2014),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레인보우북스.
- 임학순 (2015),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인식연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36, 5-3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2009 문화예술교육포럼**.
- _____ (2014),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황연주, 정연희 (2004),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과 전망",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18(3), 1-27.
- "AFK to Cultural Arts", Retrieved February 13, 2016, from https://www.geocaching.com/geocache/GC5GJ9W_afk-to-cultural-arts
- "Arts & Culture",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mrmparksandleisure.ca/227/Arts-Culture>
- "Building Western Sydney's Cultural Arts Economy-a key to Sydney's success", Retrieved February 15, 2016, from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au/Documents/Economics/deloitte-au-economics-western-sydney-cultural-infrastructure-report-250215.pdf>
- "California State PTA",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http://www.capta.org/sections/programs/cult-arts.cfm>
- "Cultural Arts", Retrieved January 2, 2015, from http://en.wikipedia.org/wiki/Cultural_arts
- "Cultural Arts",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http://austintexas.gov/department/cultural-arts>
- "Cultural Arts",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http://www.wdsra.com/Programs/cultural-arts.htm>
- "Cultural Arts",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jeepee2014.blogspot.kr/2014/03/cultural-arts.html>
- "Cultural Arts",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wilcox.wch.schoolsites.com/?PageName='OrganizationPage'& OrganizationID='16198'>
- "Cultural Arts", Retrieved February 13, 2016, from http://www.worldlibrary.org/article.aspx?title=cultural_arts
- "Cultural Arts and Multiculturalism",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people.uncw.edu/walkerr/culturalartsandmulticulturalism.htm>
- "Cultural Arts Commission",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www.cityofelgin.org/index.aspx?nid=539>
- "Cultural Arts Commission", Retrieved February 18, 2016, from <http://www.uaoh.net/department/division.php?structureid=351>
- "Cultural Arts Programs",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http://www.ssf.net/790/Cultural-Arts-Programs>
- "Cultural Arts Programs",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www.sfrcs.com/community-programs/cultural-art-programs/>

"Downtown Cultural Arts Center", Retrieved February 17, 2016, from <http://www.downtownculturalartcenter.org/>

"Mission Statement",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s://www.volunteermatch.org/search/org799283.jsp#more_info_tab

"Our Mission",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www.originationinc.org/#!mission/cj4d>

"San Diego Graffiti Education & Mural Arts Program", Retrieved February 1, 2016, from <http://www.muralallianceproject.org/>

"The Cultural Arts Center at Glen Allen", Retrieved February 17, 2016, from <http://www.artsglenallen.com/>

"The Society: Ethnicity: African: (Cultural Arts African)", Retrieved February 13, 2016, from http://society.interactiva.org/Ethnicity/African/Cultural_Arts/

"WDSRA Mission--Developing Individuals Through Recreation",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http://www.wdsra.com/General-Info/about-WDSRA.htm#>

"What is Cultural Arts?" Retrieved February 16, 2016, from http://www.memorialpto.org/html/what_is_cultural_arts-.html

"Young Peoples' Cultural Arts Workshop", Retrieved January 24, 2015, from <http://www.massapequaculturalarts.org/>